

인쇄하기 닫기

올해 자랑스런한국인대상에 봉준호·이수성·남진 등

기사입력 2019/12/16 14:27 송고

한국언론인연합회 13명 선정



봉준호 감독
[연합뉴스 자료사진]

(서울=연합뉴스) 이정현 기자 =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(회장 서정우)는 제19회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부문별 수상자 13명을 선정해 16일 발표했다.

부문별로 ▲정치발전 부문 이수성 前 국무총리 ▲국위선양 윤기 윤학자 공생재단 이사장 ▲의료 김병수 前 연세대학교 총장 ▲법조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▲교육 김창수 중앙대학교 총장 ▲대중문화 가수 남진 ▲언론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▲문화관광 류한우 단양군수 ▲유아교육 허태근 정목교육가족 이사장 ▲식품산업 배대열 (주)황금손 회장 ▲지역발전 김철우 보성군수 ▲산업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장 ▲문화예술 영화감독 봉준호가 뽑혔다.

언론인연합회는 2001년부터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외교·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을 발굴해 매년 시상해왔다.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일보사에서 열린다.

lisa@yna.co.kr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19/12/16 14:27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